



My name is Sister Mary Price. I grew up in a family of four children, one girl and three boys. I attended St. Anselm Grade School and Sacred Heart High School in Pittsburgh. I first thought about becoming a Sister when my third grade teacher, Sister Mary Eva, let me wear her rosary beads! Before entering the Community my Dad told me, “Mary, you will have to learn how to live with many different people.” How often I remembered those words. I entered in 1959 with thirty-two other postulantes.



I taugh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or 13 years. In 1974 I was asked to study at the Institute of Formative Spirituality at Duquesne University in Pittsburgh, preparing to become the Novice Director. Our novitiate was

located on the motherhouse property in Greensburg, PA. Mathew 5:16 expressed a goal for the novice: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



Professed Sisters lived in the novitiate community and provided support to me and to the novices. We called them, “golden examples.” When a novice was preparing “to go on Mission” I walked over to the Our Lady of Lourdes Shrine at Seton Hill and prayed to the Blessed Mother who knew what it meant to see Jesus enter into His public life, and I asked her to be with the novice.

Following formation ministry I was as a retreat director and served as a Pastoral Associate in several parishes, one of which was my home parish, St. Anselm. Many of the skills I developed as a novice director were applicable in this position. It was truly a delight to watch the laity develop skills and exercise them in new situations. In 2001 I was asked to serve as the Coordinator of Seton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Seton Family Board we developed programs for our Sisters and lay women and men. There were small groups to study Setonian-Vincentian spirituality. Retreats, picnics, Masses and other events helped strengthen the lives of the members. We had approximately 200 members meeting in thirteen groups in six states. Currently at St. Teresa of Kolkata Parish I work with the Ladies of Charity, a Women’s Group and a visitation ministry for parishioners in Care Facilities.

I am most grateful for Interprovincial experiences in Ecuador and Korea. I became acquainted with many Sisters and experienced their wonderful ministries. I have two Sisters in Korea as conversation partners.

I am blessed to live at Elizabeth Seton Convent where together we live the community motto, “The Charity of Christ urges us!”





저는 메리 프라이스 수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 셋, 딸 하나로 사 남매가 함께 자랐고, 저는 피츠버그의 세인트 안셀름 초등학교(St. Anselm Grade School)와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Sacred Heart High School)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메리 에바 수녀님(Sister Mary Eva)이 저에게 수녀님의 목주를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입회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메리!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자주 되새겼어요. 1959년, 저는 32명의 다른 청원자들과 함께 입회했습니다.



13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가르쳤고, 1974년에 수련장을 맡을 준비를 하며 피츠버그의 듀케인 대학교의 양성 영성 연구원(Institute of Formative Spirituality, Duquesne University)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소는 그린스버그의 모원 단지 내에 있었어요.

마태오 복음5장 16절에는 수련기의 목적을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소 공동체에는 서원한 수녀님들이 함께 살며 저와 수련자들을 도와주었는데, 저희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그 수녀님들을 "최고의 황금 모범"이라고 불렀지요. 수련자들이 "파견"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씨튼 힐에 있는 루르드 성모상까지 걸어가 성모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공생활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 성모님께 수련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양성 사도직을 하고 난 후에, 피정 사도직과 사목 협조자로서 본당 사도직을

했습니다. 제 출신 본당인 성 안셀모 본당(St. Anselm parish)에서도 사도직을 했어요. 수련장을 하며 배웠던 많은 것들을 본당 사도직을 하면서 응용할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이 새로운 상황 안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배워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 씨튼 가족 책임자로 파견을 받았고, 씨튼 가족 이사회와 함께 우리 수녀님들과 남녀 평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소그룹으로 씨튼-빈첸시안 영성을 공부하고, 피정과 야유회, 미사 및 다른 행사들을 통해 씨튼 가족의 삶을 강화했습니다. 6개 주에 13개의 그룹으로 거의 200명의 회원이 있었지요. 현재 저는 콜카타(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본당(St. Teresa of Kolkata Parish)에서 사랑의 부인회(Ladies of Charity)와 또 다른 여성 단체와 함께 일하고, 요양 시설에 있는 본당 신자들을 방문하는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시간은 에콰도르와 한국에서 보낸 관구 간 체험이에요. 많은 수녀님과 친하게 되었고, 수녀님들의 멋진 사도직도 체험했습니다. 또, 한국 관구의 두 수녀님과 영어 대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엘리사벳 씨튼 분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도다!"라는 수녀회의 모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